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창

# 창

2024 겨울 vol.65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주)리눅스아이티

리눅스아이티는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AI와 IoT/ICT를 적용한 최고의 제품 서비스 창출, 인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현재는 이롭게 미래는 새롭게' 능동적 변화를 주도하여 기술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번호 062-971-3087

홈페이지 [www.linuxit.co.kr](http://www.linuxit.co.kr)

E-MAIL [lit@linuxit.co.kr](mailto:lit@linuxit.co.kr)

회사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44번길 53-18

## 2024년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지원 과제 다각도 이미지 뷰 컨베이어 모듈 및 제어 소프트웨어





## CONTENT



02	<b>창을 열며</b> 니눔과 봉사로 이끄는 문화교류와 공동체의 힘	이영숙
03	<b>특집기획_ 우주인</b> 달빛 여행 떠나는 컨설턴트 민중의 시인이 된 경찰관 아이들의 고향을 지키는 시장님 마을 만드는 자영업자 광주를 알리는 금융맨 노란리본 묶는 사업가	유영민 김광석 박선미 병성수 김용철 정기열
18	<b>문화진단</b> 미술도시 광주를 위한 꿈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김광진 조지용
24	<b>문화해역</b> 바뀌기 원하는 곳 느린 걸음, 숨이 있는 곳	이현식 송재환
30	<b>동네봤네</b> 광주의 예루살렘	편집부
32	<b>맛의역사</b> 착한 머느리가 만들어낸 효도음식	편집부
34	<b>문화특보</b> 공동체로 태어난 호남 2세 신호는 짧고 길은 멀다	박현수 임영재
38	<b>포토에세이</b> 희망을 보다	김옥연
40	<b>전지적 범룡 시점</b> 범탈알 오빠, 상숙과 유언 II	김민표
42	<b>재단이야기</b> 재단 활동소식 · 회원소식 · 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사이버 광주은행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호남지역문화유산

발행인	오형근
편집인	김운아
편집장	김옥연
편집위원	박신영 송재관 이현식
기획 및 디자인	송재관 사무처
전자우편	r-cultural@hanmail.net
문의	062-234-2727
팩스	062-234-2728
장간	2005.11.1
발행처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도 3가) 상호빌딩 2층



# 나눔과 봉사로 이끄는 문화교류와 공동체의 힘

이영숙 재단 후원회 부회장

나눔과 봉사의 가치는 문화교류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눔과 봉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단순히 물질적 도움이나 짧은 시간의 참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눔과 봉사는 그 자체로 삶의 태도이며, 타인의 삶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자,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저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과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후원회 부회장으로서 이러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며, 매일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활동은 제게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진정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소비자의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눔과 봉사의 가치는 문화교류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우리의 일상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특히 올해 열린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광주 시민들만이 아니라, 타 지역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광주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읍세권 클라쓰'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통해 지역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발견하였으며 책과 함께 도시를 탐방하는 '책 끼고 아웃사이드' 광주유성 투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저에게 나눔과 봉사가 단순히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 연결이 더 많은 사랑과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눔과 봉사를 통해 만들어진 작은 변화는 반드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씨앗처럼 심어진 우리의 노력은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이 사회를 더욱 푸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닿고, 문화가 이어지며, 그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임을 믿습니다. 🌈



우리는

문화

인

주체적

로컬리즘

의식변화

문화공동체

지역

마을

문화도시

로컬크리에이터

마을

마을문화

지역소멸위기

공동체의식

# #101

## 달빛여행 떠나는 컨설턴트 영호남 달빛교류의 경험

유영민 6차산업 컨설턴트 포어스 팜 대표



나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특화상품 개발, 제조 등 제품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잉여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일의 특성상 국내 여러 지자체들과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농산물을 넘어 우리나라 식용작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능성 식용 제품 개발도 시작하였다.

### 지역의 성장은 문화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평소 나는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성장은 문화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중요 어젠다인 한시점에서 지역 청년 예술가들에게 진시 기회를 제공하여 작품을 통한 지역민들과 청년작가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청년작가 전시 통합 서비스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청년작가들에게 전시공간 제공과 함께 전시에 필요한 팸플릿, 홍보용 작품 엽서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청년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동기로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동참하고 싶었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지역민들에게 알려 지역 문화 예술이 청년을 기반으로 조금이나마 풍성해지기를 소망했다. 이후 작가들은 전시를 통해 다양한 전시 제안을 받았고 작품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다.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을 지켜보는 것은 나의 또 다른 큰 기쁨이었다. 그렇게 나의 사업도 점점 성장해 갔다.

## 문화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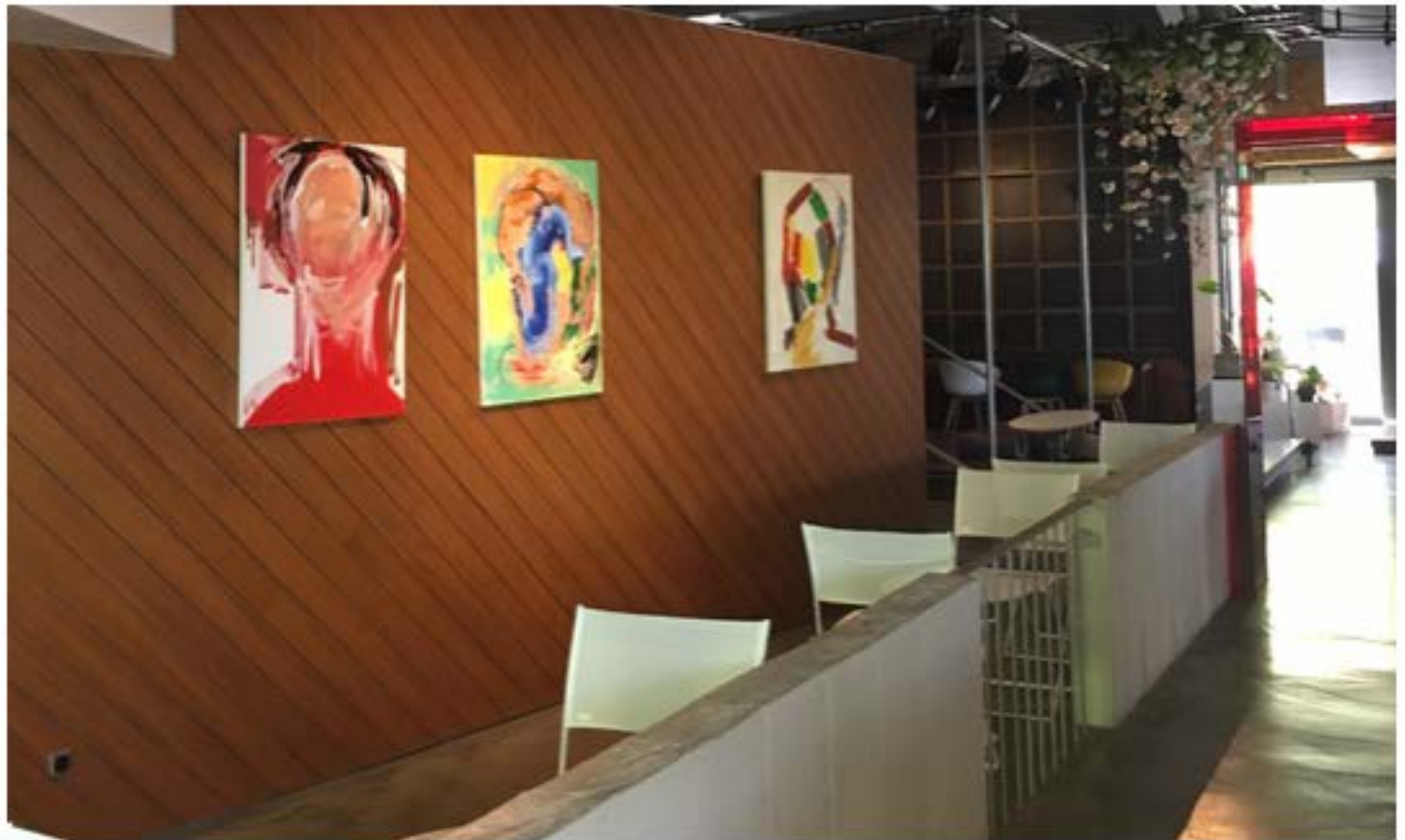
2020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을 겪으며 일상의 혼돈을 맞이했다. 처음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 별일 아닌 듯 지나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개인 생활의 폐쇄성은 우리를 점점 불안하게 했다. 일상의 통제와 막연한 불안감은 사회 시스템 중지인 듯 고요하고 침울했다. 그런 불안의 시기를 보내는 중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문인의 진화를 받았다. 그는 호남 다수의 시민단체와 문화단체가 교류의 상으로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참석해서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하자고 했다. 평소 성시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미지의 호남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이 무척 궁금했다. 그리고 영호남 문화 예술교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평소 문화 예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나는 호남의 예술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나를 무척 고무시켰다.

드디어 2020년 10월 15일 호남의 여러 문화시민단체들이 대구를 방문했다. 호남과 영남의 여러 예술 문화단체들은 간담회를 통해 영호남 지역을 넘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이라는 큰 비전을 나누자 했다. 영호남 교류의 시발점을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가 이어지는 포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끌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교류는 문화를 뛰어넘으며 다양한 교류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의미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각인된 일이다.

방문하신 호남의 유명 예술인 중 장애를 가진 분이 계셨다. 평소 특성 전문 분야 장애인들의 협의체는 그들만의 활동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영호남 교류 의미에 뜻을 두시고 참석하셨다. 나는 그분과의 만남과 여러 이야기를 통해 문화가 주는 힘과 이 교류의 의미가 완성됨을 알았다.

그 후 호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호남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나는 민간 스스로 이루어진 영호남 단체들의 달빛 동행이 각 지역의 이질감을 없애는 좋은 소통의 기회이자 교류의 경험을 통해 지역의 관광, 예술, 경제가 통합되어 더욱 큰 시너지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성지 상황은 교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다 보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달빛공감의 문화 교류 의지를 박지 못했다. 짧은 우정의 시간은 헤어짐의 아쉬움과 다시 만날 희망을 남겨 주었다.





코로나가 상전화되면서 1년의 휴지기를 가진 후 2022년 10월 2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대구만의 향토 음식을 먹으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영호남의 많은 이들이 교류회를 위한 선물을 별도로 후원해 주기도 했다. 우리는 영호남이라는 지역 사이클 떠나 사람이라는 문화가 오고 가는 경험을 했다. 문화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모니인 것이다.

특히 2022년 2023년은 문화 예술과 더불어 교육, 경제 등 문화에 국한되지 않은 넓은 의미의 달빛동맹을 제안하였고 그 후 뜻을 함께하는 많은 지역 경제인과 지역의 콘텐츠 제작자, 지역 대학의 청년들이 다수 참여했다. 달빛 동맹의 소동과 교류의 현상은 연대와 화합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고 인론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가 교류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023년은 광주에서 우리를 초대했다. 광주의 주요 문화의 창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디자인 비엔날레 현장을 방문하고 두 곳의 수준 높은 문화전시 공간 관람과 함께 문화 부시상님과의 짧은 만남도 가졌다. 관에서도 영호남 교류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호남 방문 당시 받은 귀한 대접과 배려는 마음 깊이 전달되었다.

영호남 달빛공감 교류회 이후 나는 자주 호남 지역을 여행한다. 나에게 호남은 두어 시간 가면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자연경관과 관광지, 맛있는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숨쉬면서도 정갈한 호남의 음식들은 일상에 지친 나를 치유하는 보약 밥상이다. 더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수준 높은 전시와 공간은 매번 나의 발걸음을 광주로 재촉한다. 나는 대구 달구벌 광주 빛고을의 달빛교류를 통해 공기관에서의 협력만큼이나 민간의 음식임이 주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실감했다. 미시적 영향력은 민간 스스로 생소했던 각각 지역의 문화와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각인되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지역의 많은 이들이 교류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국가는 공식 교류를 넘어 다양한 사적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호남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 민중의 시인이 된 경찰관

그늘

김광석 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 과장

#02

점심 한 끼 때우려고 518민주광장을 가로질러 걷다가 삼시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다.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횡단보도 앞  
보도블록 사이에 아주 작은 망초 한 그루가 뿌리를 박고 있었  
다. 필경 근처 어딘가에서 여문 씨앗이 날아와 자리 잡았을  
터였다. 마침 정오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여 망초가 그늘을  
만들었고 햇볕 뺨뺨한 날이었는데 지나가던 작은 개미 몇 마  
리가 그 그늘 밑으로 모여들어 쉬고 있는 것 같은 착시가 있  
었다. 왜 그때 그 작은 망초 한 그루가 유독 내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휴대폰으로 사진을 한 컷 찍어 두었는데....

안타까운 일은 작은 것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을 법한 그 어  
린 망초 한 그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발걸음에 밟혔  
는지 크지도 퍼보지도 못하고 절명했다는 것이다. 간간이 이  
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근혹스럽다. 현실 속에서 삶을 어떻  
게 살아왔느냐보다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순간이어서 씁쓸하기도 하다. 훗날 여  
러 날을 그 사진에 무슨 글을 입혀 볼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  
리고 하다가 '그늘'이란 글을 짓고 사진에 입혀서 내 카톡 프  
로필에 올려놓았더니 좋았다는 반응들이 더러 있었다.

그늘이란 말을 찾아보니 사전적 용어로는 '어떤 물체에 가려  
빛이 닿지 않는 상태', 즉 어두운 부분을 말하고 두 가지의 의  
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서지나 환경을 말하는데 오늘날 그늘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의 그늘, 이별의 그  
늘, 경쟁의 그늘, 조식의 그늘, 양극화의 그늘, 전쟁의 그늘,  
육방의 그늘, 간병의 그늘, 고령사회의 그늘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삶에 부정적 의미의 그늘을 풀일 수 있는 단어들이 왜



- 그늘 -

아주 작은 것들도  
일 곳이 필요하지  
때론 기댈 곳도 필요하고

나는 작지만  
더 작은 누군가를 위해  
그늘을 만들거야

지친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쉬어 갈 수 있도록

나의 사진 김광석



이러도 않은 걸까. 그냥 가지다 붙이면 다 그늘이 되는 세상이다. 우리 사는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반증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에게도 살아오며 그런 그늘이 드리운 석 있었던 걸까. 배운 것 없이 가방끈이 짧았다든지, 학교 때려치우고 이 공상 저 공상 기웃거렸다든지, 인생 대학에서 단뿔 쓴뿔 다 뿔보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에게 그늘이었던 걸까. 사실 세상에 그늘이 없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 그늘이 없이 평생을 살았다면 과연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이 무탈하게 살다 가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늘이 없이 한평생을 살다간 사람은 정말 온 좋은 사람이거나 진짜로 재미없는 사람이리라. 시인 성호승은 그의 시에서 -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일갈했다. 그늘이 있었기에 아픔을 알았을 것이고 그 그늘을 헤집고 나왔기에 그들은 더 성장하고 더 깊어졌을 것이다. 또한, 그 그늘을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더 사랑하고 더 시열하게 살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 단 한 줄의 글이나 시로서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는 없을까

4-5년 전부터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에 글을 입힌다.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요즘엔 '디카시'란 새로운 장르가 있는데 나와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나는 나의 작품에 '시와 사진'이라고 명칭하고 작업하고 있다. 도심 주변을 많이 걸으며 주변의 강가나 천변, 골목길, 하늘과 땅, 꽃, 풀 등을 찍어 글을 입히는 작업이 여간 재미가 있다. 점점씩 깊이 있게 찍은 것들, 낮은 곳, 어두운 구석을 찾아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입혀본다. 미리 글을 써 놓았다가 사진에 입히기도 한다. 사실 오래 전부터 마음이 내려앉을 때마다 시를 읽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좋은 구절을 만나면 필사도 하였다. 그러다 써보고 싶었다. 2009년 봄쯤인가. 그때가 5월이었는데 산비탈 소나무에서 송홧가루가 한창 날리던 때였다. 어떤 분의 서거일 전후였는데 소나무에서 날리는 송홧가루처럼 나만의 울분이었을까. 마음속 감성이 마구마구 뒤섞이고 원가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트에 끄적끄적 했던 것인데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렇다고 고백하건대 여전히 나는 시인이 아니다. 등단도, 카톡 외에는 어디에도 내본 적이 없기에, 그러므로 내가 쓴 것은 고로 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그저 나의 독백이자 고백이다. 어릴 적 써보지 못한 일기라고나 할까. 결핍을 채우는 나만의 방식이라고나 할까.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외침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단 한 줄의 글이나 시로서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한 번씩 해본다.

그늘의 또 다른 의미는 긍정적 의미로서 '의지할 만한 사람의 보호나 혜택'을 말하는데 점점 메달라 가는 세상, 말의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준다는 것은 빛이 되어 준다는 것과 동의어 이리라. 여름 한낮 나무 그늘 아래

쉬어본 사람이라면, 뜨거운 띄약벌 아래 눈일 발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막이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헤매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그늘진 시절의 나에게도 그늘이 되어 준 사람이 있었는가.** 찌그러진 깡통처럼 다시는 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때 나에게 용기와 희망과 마음의 위안을 준 것들이 있었는가. 아니라면 거짓말 이리. 어린 날 지천 듣고 집에서 꽃거닐 때마다 가만히 문고리 열어 나를 품어주시던 할머니, 스무 살 다 큰 놈 손잡고 고등학교에 입학시켜준 엄마, 껌남도 안되는 나를 선생님이라도 해보라고 대학 시험 보게 하신 선생님, 사회에 나와 고꾸라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준 고마운 사람들, 위기 때마다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준 동료들, 그리고 유년 시절 내 기억의 저장창고에 나열된 스쳐 간 많은 것들. 상상의 나라가 펼쳐진 책들 그리고 모든 살아 있는 것들, 죽은 것들, 원래 있었던 것들, 새로 다시 태어난 것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규칙의 노예였는지 모른다. 질서를 배우고, 복종을 배우고, 그러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아 또는 반형아가 되거나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나도 오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통제에 물들어가고 입조사 봉하고 살아왔는데 맞는 웃인지 안 맞는 웃인지도 모르고 입었던 이 직장, 이 직업도 올해로 30년째 하고 있고 이제 퇴직까지 한 3년 남았구나. 사명감으로 살아왔는지, 생존을 위해 살아왔는지, 생활을 위해 살아왔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아마도 세월에 쫓겨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만약 내 인생을 삼등분한다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 30세까지가 제1의 인생, 공식 생활 30년이 제2의 인생, 은퇴 후 30년이 제3의 인생이리라. 그런데 은퇴 후 또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출퇴근을 대부분 걸어서 한다. 건강도 쟁길 김 사진도 찍고 사색도 즐기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출근길 푸른 길을 걸어 6시쯤 남광주 주차장 새벽시장을 한 바퀴 돌고 민주광장을 지나오는데 꼭 내 눈에 밟히는 것이 하나 있다. 남광주 시장 기찻길 언덕 위에 오래전부터 할머니 한 분이 큰 나무 밑 벤치에 세 들어 살고 있다. 허공과 말동무하며 벤치와 한 몸이 되어 가신다. 어떻게 오랜 세월 그곳에서 혼자 살고 계신지 늘 의문이다. 연세는 근 칠팔십 세가 넘으신 거 같은데 항상 누워만 계신다. 끼니는 때우시는지 씻기는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늘 궁금하다. **우리 사회 그늘의 한 단면인데 누구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무한 상상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큰 나무처럼 나무 그늘을 만들어 누군가가 그늘 밑에 모여들어 쉴 수 있다면, 그들이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늘이 있는 사람의 그늘이 되어 준다’는 것** 그 크기는 크든 작든 상관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재력이 있다면 통 큰 기부로, 그것이 아니라면 행동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가수라면 노래로, 화가라면 그림으로, 시인이라면 시로, 그것조차도 아니라면 단지 따뜻한 마음으로써 동참하면 될 것이다. 혹시 그러다 모를 일이다. 얼굴에 혹은 마음에 그늘이 있던 그들이 누군가의 그늘 밑에서 마음의 위안과 희망과 용기를 얻어 더 작은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만의 생각일까. 그런가.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는 어떠하신지. 큰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대도 작은 누군가를 위해 베풀어보기 바란다.** 삶은 유한하고 때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지금부터 그 누군가가 되어보면 어떨까. 주변을 살펴보고 나무를 심어보고 어디든 그늘진 곳을 찾아 굶어주자. 누구든 그늘진 얼굴에서 환한 웃음꽃이 활짝 필 때까지.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생의 엔진이 꺼질 때까지 힘껏 달려볼 일이다. 🌱

## '선한 영향력'

**재력이 있다면 통 큰 기부로,  
가수라면 노래로,  
화가라면 그림으로,  
시인이라면 시로,  
그것조차도 아니라면 단지 따뜻한  
마음으로써 동참하면 될 것이다**

# #03

## 고향을 지키는 사장님 내 아이들의 고향. 신안군!

박선미 자영업자, 새마을문고 지도읍회장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 조도면의 작은 섬, 대마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대마 분교를 졸업한 뒤 본섬인 조도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목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고향이 너무 촌스럽다고 느꼈던 나는 도시 생활이 마음에 들어 절대로 시골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 결국 다시 섬으로, 신안 지도읍으로 시집오게 되었다. 같은 섬이라지만 훨씬 큰 섬으로 왔으니 "출세했다"라며 농담하는 남편 친구들 덕분에 웃음도 많았다. 그렇게 지도읍에서 살게 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나는 신안군에서 1인 자영업업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 내가 사장이고 직원인 작은 사업체로, 주로 우리 가족이 재배한 양파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양파가 가장 많이 수확되는데, 우리 집도 양파 농사를 짓고 있다. 수확한 양파를 트럭에 싣고 판매처로 가져가기도 하고, 일부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들여와 손질하고 양파즙으로 가공해 상품화한다.

요즘은 양파즙이 예전만큼 많이 팔리지 않지만, 내가 성직하게 기르고 가공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자부심은 여전히 크다. 사업장 옆에서는 카페도 함께 운영하며 마을의 이런저런 일에 관심을 두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이 아닌  
평범한 여자이자 엄마,  
나같은 흔한 동네 아줌마!



###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어느새 새마을 문고 지도읍 회장이라는 직함까지 맡게 되었다. 문고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화목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외국에서 국제결혼으로 신안에 정착한 아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한 달에 한 번, 멘토와 멘티가 모여 한국의 문화와 제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계절에 맞는 밑반찬 만들기, 출산과 육아 교육, 공예와 꽃꽂이, 혹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때로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정 환경을 살피고 문화적 적응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신안군 14개 읍면의 결혼이민자 여성들과 회장이 함께 어울릴 기회도 주어진다. 각자의 언어는 서툴러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주 여성들은 점차 동네의 친구이자 이웃으로 자리 잡아간다.

나는 이들을 외국인이나 아니라 평범한 여자이자 엄마, 나같은 흔한 동네 아줌마로 느낀다. 특히 한 친구는 고향과 미래에 대한 꿈을 서툰 한국어로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때 반짝이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한 번은 이민자 여성들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1박 2일 섬 투어를 떠난 적도 있다. 배 위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아이들을 보살피며 어물렸던 시간이 정말로 좋았다. 그날 들었던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엄마들의 웃음소리는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

## 이주 여성들이 행복하게 정착하기를 나 역시 그 시작을 돕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 신안군과 나의 바람

신안군은 여전히 농촌 총각은 많고 결혼 석령기의 여성은 부족한 현실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면 1/4은 외국인 엄마들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 것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신안에 온 이주 여성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행복하게 정착하기를 바란다.



나 역시 그 시작을 돕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신안군은 전남에서도 선입견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1남 2녀를 낳고 25년을 살아오며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 각 읍·면은 고유의 테마를 바탕으로 관광지로써 꾸며지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도 재배·개발되고 있다. 쌀, 양파, 대파, 마늘, 시금치 같은 농산물과 민어, 병어, 오징어, 새우젓 같은 수산물은 신안의 자랑이다. 물론 어디에나 문제는 있지만,新安군은 양지(陽地)는 더욱 키우고 음지(陰地)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내게는 남편의 고향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신안군이 젊은이들과 노인들, 결혼이민자와 노동자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04

## 마을을 경영하는 사업가 참여예산 ..민주주의의 시작

빙성수 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을 연 획기적인 제도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여년 동안 참여예산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예산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의회나 행정부에 의해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의회는 한때 시민이 결성한 참여 예산 사업을 전액 식감하거나 반토막 내는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치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민들의 의욕을 꺾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북구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대표회의는 주도적으로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강사를 최소화하고 대표회의 위원들로 강사진을 구성하는 방식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민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필요와 변화에 맞춘 실행력을 발휘하는 이 체계는 지속가능한 참여예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내가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추진한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8년, 40여 년간 변화가 없던 용봉동 생활도로에 안심 칼라 벨트를 설치한 일이 그것이다. 용주 초등학교를 지나 행정복지센터와 진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로

### '주민참여예산제'

### 2003년 광주광역시

### 북구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연 획기적인 제도

이어지는 이 도로는 예전에는 단순한 생활 도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어린 초등학생들과 지역민들의 통학로와 주요 보행로로 자리잡았다.

이 사업은 동 예산위원회의 열성에서 출발하여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 이 사업은 국내 최초 사례로 국토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는 광주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확대되었다.

이처럼 주민들이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참여해 추진한 사업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주민참여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광주 용봉제의 생태습지공원 조성이 있다. 비엔날레 전시관 옆 저수지가 악취와 우범지대로 방치되던 상황을 참여예산사업으로 개선하여, 지금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비엔날레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2019년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 2020년 시착된 사업으로, 2년마다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중요한 코스가 되었으며, 지역민들의 맨발걷기 코스와 쉼의 공간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히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자산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것은 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보여준다.

##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참여예산이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참여예산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처럼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예산이 예산 삭감과 축소로 이어진다면, 이 제도의 본질적 의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 시도를 지원하는 것이 참여예산의 진정한 역할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의 실천이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행정의 협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성공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이제는 더 많은 지자체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여예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단순히 예산 편성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지역사회 혁신의 핵심 도구로 삼아야 할 때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여예산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점이다. 동시에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참여예산제 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깨우는 참여예산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신이자,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

# #05

## 광주를 알리는 금융맨 인생 이모작

김용철 MG동명새마을금고 이사장

12월 3일 오후 10시가 훨씬 지난 시간에 친구로부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전화가 왔다. 나는 그때 일본어를 공부한 덕분에 광주·전남지역의 5·18 관련 사석지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교정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깐 한동안 머릿속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급히 TV를 켰다. 5·18 당시의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방송에서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재방송하고 있었다. 5·18 당시 비상계엄령을 경험한 세대로 계엄군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공포와 무서움을 아는지라 방송을 보면서 몸이 부르르 떨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상황을 보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로 하고 방송을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국회 안팎의 긴박한 상황이 나왔다. 천만다행으로 아주 큰 사건 없이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가결하고 군대가 물러가고 이후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군인들이나 시민들은 1980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나라가 극도의 위기로 변해버린 것을 경험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44년 전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학습효과라고 본다.



### 나의 인생 이모작 '오월지기' 활동

요즈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나에게 이 말은 어울릴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작은 새마을 금고에서 이사장직을 하고 있다. 아주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이 일은 일정한 기한이 있는 한정된 직업이다. 물론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나는 이모식으로 20년 전부터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은 5.18을 국내외에 알리거나 광주를 방문하는 타지역 사람들과 일본 방문자에게 사적지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해설하고 안내하는 자원봉사 수준의 '오월지기'활동을 하고 있다.

'오월지기' 활동을 하는 것은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큰 자긍심과 위안을 심어주고 있다. 이 활동은 정기적인 활동이 아니라 비정기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지만 5·18을 경험한 시민으로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을 국내외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광주시민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본에서 5·18의 의의와 사적지를 돌아보고 당시의 계엄령과 긴박했던 현재의 계엄령에 관해서 인터뷰가 있었다. 멀리 일본에서 나를 찾아온 것은 그동안 이모식 활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한국은 5·18을 경험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슬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자랑스럽고 인간애가 넘치는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하고싶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월지기'활동과 광주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모식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5.18은 이제 슬프거나 어둡고 부끄러움의 역사가 아니고 밝고 자랑스러움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하고 싶은 말은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이다. 🍀



##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을 국내외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광주시민의 책무

요즈음 다행히 한강 작가가 5·18과 관련된 소설 '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계엄령과 관해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가 보여준 것은 44년 전 당시 잔악함과 공포도 있었지만, 광주시민은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의 열망과 다른 민주화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나눔과 대동세상' 혹은 '절대 공동체'를 실현하였다. 나는 이것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두가지 정신 외에 자유와 인권 등 관련된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화운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 노란 리본 묶는 사업가

현실은 불편하다. 그래도 보라.

정기열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해 2014년 4월 16일은 참사를 목도했던 진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아픈 기억이다. 영상을 통해 침몰하는 순간들은 비현실적이었다. 그 당시 나는 병원에서 업무를 보던 중이었다. 영상자막에 진원구조라는 타이틀을 보며 안도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점심때쯤 알았다. 그 이후의 아비규 환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했던 그대로다.

나는 평범한 시민으로 병원에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스카우트 대원으로, 나는 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하며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해 가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

“너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없다.

작은 부분에서라도

너의 힘이 보태어지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그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성장하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사회적인 흐름과 변화 속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어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을 받고 아이들과 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 해 온지 10년사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 참사를 목도하며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척성 세월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나 수소문 하던 중 화성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준비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함께 시작한 단체가 ‘세월호3년상을시르는광주시민상주모임’이었다.

단체의 성격은 단순했다. 세월호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 곁에서 상주가 된 마음으로 위로와 힘을 주자는 취지였다.



그 당시엔 상주가 3년이면 탈상을 하듯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3년상을치르는세월호광주상주모임(이하상주모임)은 법원 앞 진실마중 길을 시작으로 십자가 도보 순례, 천일 순례 등 가족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20여개의 마을춧불이 만들어지고 각 마을에서 매일 피켓팅을 통하여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세월호 참사 후 재난조사 기구가 꾸러지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8년여동안 조사가 이뤄졌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요원한 상대다.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상주모임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우리 스스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게 생겼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이 마을, 시민 사회단체, 시민들이 길고 안정적인 사회 변화를 모색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무지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해제 및 탄핵까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은 빛을 발했다. 이 놀라운 결과에 대해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살렸다.”라고 말한다. 동학 농민 혁명에서 3.1운동으로, 4.19혁명 정신과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세월호참사, 이대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사회 변화 인식이 승리를 가져 왔다고 나는 믿는다.

“ ‘우리’를 위해  
‘나’를 내어 줄 수 있을 때  
인간은 아름답고  
앞으로도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체계바라는 말했다. 박용하 시인은 [심상이 올라와 있다]라는 시에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반 썩이는 눈을 들여다 보면 그 눈동자엔 심상이 올라와 있다.”고 하였다.

논리적인 머리가 아니라, 심상이 침묵하지 않게 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바로 상주모임과 함께 하는 광주시민들이다. 🌸

# 문화예술 지원 삭감에 대한 우려

조지웅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정부의 2024년도 문화예술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예산 감액은 예술계와 교육계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2023년 574억에서 2024년 287억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 81억으로 72%를 추가로 삭감했다. 예산의 대폭 삭감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술교육 기회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술강사들은 전국 초·중·고 약 8,500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제한될 경우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접할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교육 기회 축소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예술강사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많은 예술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예술강사의 생활 안정성을 해치고, 우수한 인재들이 예술교육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장애인 문화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에게도 문화예술 지원금의 대폭 삭감은 피부로 느껴진다.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는 광주광역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 해 평균 200여 명의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년 5명의 장애예술인을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광주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금이 2023년 전년 대비 10% 삭감된데 이어, 급기야 2024년 100% 전액 삭감되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보완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성과 안정성 문제, 예산의 한계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진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 입게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은 단순히 여가활동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능을 담당한다. 문화예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비장애인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인복지의 목적 중 하나인 사회통합을 하게 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성 형성 및 자신감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자신의 장애와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장애정체성이 변화되고, 기존의 삶에서 얻을 수 없는 문화적 자극을 통해 이해력과 어휘력, 자기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예술강사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많은  
예술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문화예술 지원예산 축소의 주요 이유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지목된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 부문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문화예술 부문이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정서적 충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시장논리에 국한한 관점을 벗어나 예술의 지속성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부문의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외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비교해 보면, 예산 지원의 규모와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자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창작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금 대폭 삭감은 예술계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계와 교육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 미술도시 광주를 위한 꿈

김광진 (진)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사진 :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는 한명의 행정부시장과 한명의 정무부시장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선출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시장은 단 한명의 정무부시장만을 임명하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정무부시장의 명칭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어느 곳은 그대로 정무부시장이라고하기도하고, 어떤곳은 평화부지사, 다수는 경제부시장이라고 칭하면서 역할을 특징짓기도 합니다.

**17개 광역시도중에서 유일하게 광주만이 "문화"라는 명칭이 들어간 문화경제부시장을 두고 있지요.** 그만큼 광주라는 도시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다른 도시보다 훨씬 월등하게 문화의 위상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광주를 흔히 예향, 미향, 의향의 도시라고 칭합니다. "예술의 도시 광주"라는 말일텐데요. 시의 문화경제부시장일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이 부분이였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너무 넓다는 것!** 부산하면 영화, 동영하면 음악, 부천하면 만화, 전주하면 국악이 떠오르듯 광주하면 뭔가가 떠올라야 하는데 예술이라고 통쳐버리기에는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예술 중에서도 무엇이 광주의 대표주자인지를 명확히 해야 광주의 문화예술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술도시 광주"라고 정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주에는 30년을 이어온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고, 전세계 비엔날레 안에서도 5위안에 드는 매머드급 미술축제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국공립미술관이 시도해보지 못하는 창·제작과 실험미술이 국가의 예산을 바탕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미술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관련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10년째 유지해오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립 미디어아트미술관인 GMA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광주의 미술이 시민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비엔날레는 너무 어려워" "ACC는 언제 활성화 되는거야?"라는 질문들을 시민들이 종종 하십니다.

사실 비엔날레는 원래 어려운 미술입니다. 취지 자체가 지금의 미술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니라 **미래의 미술을 제시하는 혁신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달리 설명하자면 우리가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쇼의 모습을 보면서 '저걸 입으라고 만드는 걸까?' '저게 옷이기는 한가?'라는 의문을 제시하지만 전세계의 패션관계자들은 그 패션쇼를 보러 옵니다.

지금 입고 다닐 옷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저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미래의 색깔, 디자인, 사조, 방향성을 알고 싶어서이지요. 그리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1년후에는 양복점에서 맞춤옷을 만들고, 2년후에는 기성복의 유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보니 미술관에 액자로 넣어둔 그림을 기대하고 왔던 관객에게 갑자기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바닥에 온갖 잡동사니가 널브러져있고, 하늘에 커다랗게 매달려서 빛을 쏘고 있는 것이 미술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초창기 비엔날레를 강제동원되어서 참관했던 30년전의 기억이 비엔날레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이 되다보니 비엔날레 하면 어렵다고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민도슨트 운동'입니다. 광주시민 150만명중 10%면 15만명, 1%면 1만5천명입니다. 단 1%의 시민만이라도 최소 5시간정도만 비엔날레는 어떤 곳인지, 과거 30년간 광주 비엔날레에서 제시되었던 미술사조가 시간이 지나서 세계 미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번 전시에는 어떤 작품들이 선보이는지를 알게 된다면 지적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광주를 찾는 지인들에게도 작품을 설명해줄 수 있는 시민도슨트의 역할을 독특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는 fun만 있는게 아니라 interest도 있으니깐요.

비엔날레와 더불어 미술도시 광주를 위한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광주아트페어입니다. 아트페어는 쉽게 말해 갤러리가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 관람객이 작품을 구매하는 그림 판매시장이지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갤러리와 작가가 나누어 갖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광주아트페어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광주가 너무 긴 시간동안 예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광주의 유력자분들은 미술품 구입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술 사업에 지원도 많이하고 자신이 아껴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구매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그림은 상업이 아니고 예술이고 작가에 대한 응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갤러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아트페어보다는 작가와의 직접거래에 익숙합니다.

당장은 이런 방식이 작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갤러리가 이 수익을 바탕으로 작가를 발굴하고 화랑협회의 Kiaf나 부산의 BAMA등에 전시를 해줄 수가 없게되고, 더 나아가 해외전시와 판매를 주선할 비용도 마련되지 않으니 지역작가는 광주외에 작품을 선보이기조차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작가도 지역갤러리도 미술애호가들도 함께 성장하고 살아나갈 길을 모색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미술도시 광주는 시민도슨트 페어





사진 :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홈페이지

두 번째 고민은 갤러리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여도 과연 유명작품을 광주아트페어에서 구입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조차 홍콩이나 미국아트페어와 경쟁을 하는 시대이고 고가의 작품은 그런 곳을 통해서 전시되고 판매됩니다.

광주아트페어의 성공기준을 올해 10대 갤러리를 몇 곳이나 유치했는지, 해외 유수의 작품을 얼마나 선보였는지, 광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명작가의 역대 작품들을 판매해서 총 판매고를 얼마나 올렸는지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른 아트페어의 지역버전, 아류의 아트페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광주, 전남의 미술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판매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듯이 아트페어라는 예술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미술도시광주를 위해 필요한 일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미디어아트 미술관인 GMAP에 전세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중앙본부를 유치해오는 일, 아트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ACC라는 협소한 공간을 뛰어넘어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일, 현재 30개국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 파빌리온을 상설화해서 각국 대사관의 문화원을 광주로 유치하는 일, 시민체감형 전시와 교육을 일상화 하는 일 등 등 관에서만 나선다고 될 수도 없고, 문화단체만이 동참한다고도 완성되지 못하는 광주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이루어 낼 수 있는 꿈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미술도시 광주를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사진 :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홈페이지

# 바퀴가 멈추는 곳

제주도 환상자전거길

이현식 이현식멘토스쿨원장

김녕  
해수욕장  
11.9 Km

오르막의 고통이 있고 난 후에는  
항상 내리막의 성취감이 있다.  
만고불변의 세상 이치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는 정말 신비한 도구다.



“자전거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 설렌다’는 말과 동격입니다. 여행을 생각하는 그날부터 설렘이 행복이 되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요. 특히 이번에 도전하는 자전거길은 수많은 자전거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제주도 환상자전거길입니다. ‘환상’의 환(環)이라는 글자는 고리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제주도 자전거길이 다른 곳과는 달리 전체 234km구간이 동그란 원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주도란 지역 자체가 워낙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왕복교통편을 일찍 계획하고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목포에서 제주를 왕래하는 배편이 꼭 알맞은 시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배는 1개월 전에 예약을 하려는데도 주말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사리 좌석을 구했는데 막상 그 날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날씨가 문제가 됩니다. 해안을 주로 이동하는 제주 자전거길은 비가 오면 바람이 심해서 라이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두 번의 예약과 두 번의 예약 취소를 거친 후 세 번째 도전 만에 성공하게 됩니다.

밤10시, 아들과 저는 자전거 두 대를 나란히 차에 싣고서 광주에서 목포로 출발합니다.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배는 아침 6시에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아들은 건물보다 큰 배는 처음 보는 데다 배 안에 체과점이며 편의점, 오락실, 휴게실 등 갖가지 편의시설이 있어 그 규모와 편리함에 눈이 휘둥그레 집니다. 저 역시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은 아들이나 아빠나 매한가지입니다. 오늘밤 배 위에는 자전거에 꿈을 실은 두 소년이 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나니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푸르스름한 새벽의 빛과 공기가 상쾌합니다.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으니 그 상

그러움이 코에서 때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음, 이게 제주도의 향기로구나.” 오늘 우리가 달릴 구간은 용두암에서 다락섬터, 해거름마을공원, 송악산, 법관바당을 거쳐 최소작 그리고 표선해변에 이르는 160km 구간입니다. 제주도 자전거 여행 그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용두암에서 무지개 해안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바다를 끼고 달립니다. 일목달록 색칠된 도로옆 분리대와 푸른 바다 그리고 더 푸르른 하늘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을 지나고 나서는 주변 풍경이 이국적입니다. 마치 외국의 바닷가를 달리는 듯 합니다. 자동차로 여러번 제주도를 방문했었지만 이렇게 땅의 냄새를 맡으며 도로를 움켜쥐듯 달리는 것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다락섬터에서 인증도장을 찍고 한참을 가다보니 우리와 같은 한 무리의 자전거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자전거 열차에 마지막 한칸이 되어 함께 도로를 달리다 보니 각지 해수욕장에 다릅니다. 자전거길로만 갔다면 이곳을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길을 잘 아는 자전거 여행자들 덕분에 가는 길에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 더 얻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해거름 마을공원에서 인증을 하고 이어서 송악산으로 향합니다. 업힐과 다운힐이 계속 이어지는 낙타등 코스입니다. 아직 다리에 근육이 충분히 붙지 않은 아들은 연신 숨을 헉헉댑니다. 스스로 힘겹게 내딛는 한걸음들이 모여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근육을 만들기를 기다리는 것 또한 부모의 일입니다. 한참의 업힐이 끝나고 송악산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은 말을 잃게 만듭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그 위로 우뚝 솟은 산방산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한참 멍하니 그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놓고 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 멀리 보이는 산방산을 넘어 최소작 거쳐 표선까지 가야만 합니다. 송악산 휴게소에서 손으로 빚은 만두로 배를 채우고 산방산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카페들 그리고 산방산의 장엄한 모습이 좌우로 지나갑니다. 페달을 굴릴 때마다 바뀌는 풍경은 마치 낯선 세상을 향해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중문부터는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오르막의 고통이 있고 난 후에는 항상 내리막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세상이지를 매순간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는 정말 신비한 도구입니다. 법원바당에서 최소작으로 가는 길은 약간의 해변과 고즈넉한 마을들을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표선해변을 지나 성산으로 가는 중에 날이 어두워집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이며 어두워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 합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어제 맑았던 하늘은 신기루였다 싶을 만큼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성산일출봉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하고 길을 이어갑니다. 비와 바람 그리고 자욱한 안개 때문에 정작 성산을 지나면서도 성산일출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산일출봉을 사진이 아닌 우리의 눈과 마음에 담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비가 왔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때리는 비 속에서도 김녕해수욕장으로 가는 자전거길은 우리의 넋을 빼놓을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도로와 넓은 모래사장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끝없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로 바닥에 적힌 '김녕해수욕장까지 남은 거리 00km'라는 표지의 숫자만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은 이 숫자가 0이 되면 이 아름다운 풍경도 우리의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지요. 힘들고 이 힘들음을 끝내기 싫은 아쉬움이 묘하게 교차하며 제주도는 우리의 마음 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와 자리합니다.

비를 흠뻑 맞은 후 목포로 가는 배 안.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는 섬들이 배 옆을 유유히 스칩니다. 이번 자전거 여행도 이렇게 마무리 되어갑니다. 모든 게 지나가더라도 제주도가 우리 맘속에 남겨둔 조그만 공간은 평생토록 간직될 거라는 것을 저 바다는 알고 있겠지요. 아이의 꿈 속에서 제주도는 어떤 빛깔로 남을지 궁금해집니다. 🌊



'남은 거리 \*\*\*km'

이 숫자가 0이 되면 이 아름다운 풍경도  
우리의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든다.  
힘들고 이 힘들음을 끝내기 싫은 아쉬움이  
묘하게 교차하며 제주도는 마음 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와 자리한다.

느린 걸음, 쉼이 있는 곳



## 광주 동구 인문학당, 여유와 역사를 품은 공간

송재환 바람아래 기획실장

광주 동구 인문학당에 들어서면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온몸을 감싸온다. 거울이 시작되는 시점,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한 인문학당은 마치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은신처와도 같다. 정원에 서 있는 나무들은 이미 가을을 지나며 잎사귀를 대부분 떨궜고, 차가운 바람이 가지 사이를 스치며 고요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돌담과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거울을 맞이하는 인문학당의 정취를 한층 깊게 만들어 준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는 것은 1920년대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붉은 벽돌의 외관이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의 건축 양식을 간직한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다. 작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거울 햇살은 부드럽게 건물 내부를 밝히고, 오래된 목재 바닥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조용히 받아준다. 이런 건물의 분위기 덕분에 인문학당은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복잡한 생각을 비워주는 편안한 장소가 되었다.

## '역사적 의미와 인문학당의 재탄생'



광주 동구 인문학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역사의 일부를 간직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은 원래 교육 시설로 지어졌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여러 용도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인문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문학당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 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덕분이다. 낡고 방치되었던 건물은 2000년대 초반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그 결과 2020년에는 광주시 건축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3년, 광주 동구 인문학당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다. 이 상은 인문학당이 역사적 보존과 현대적 재생을 조화롭게 이뤘던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다.

## '여유를 즐기는 공간, 인문학당의 매력'



인문학당의 건물은 역사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소로서,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인문학당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책 한 권을 들고 정원 가장자리의 벤치에 앉아 사색에 잠긴다. 초록의 잎사귀 대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은 한층 차분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정원의 모습은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이곳의 작은 도서관과 강연실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강연과 독서 모임이 열리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는 인문학당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살아 있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 '역사와 현대의 조화'

인문학당이 건축대상과 공간문화대상을 받은 배경에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 요소와 조화롭게 결합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원래의 건물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적절히 도입해 사용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이곳은 단순히 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 큰 이유로 꼽힌다.

건물 내부의 디자인 역시 인문학적 정취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개입만을 시도했다. 기존의 목재와 벽돌을 최대한 보존하고, 색상이나 재질을 원래의 느낌과 일치하도록 선택함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정취를 전달한다. 하지만, 전기나 조명 등의 현대적인 요소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 건물의 기능성을 보완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공간으로서 인문학당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다.

## '노력이 빚어낸 풍요로움'

☞ 광주 동구 인문학당은 그저 아름다운 건물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깃든 역사가 주는 깊이와 이곳을 유지해 온 사람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인문학당을 방문하는 순간, 우리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그 여유는 곧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 양림역사문화마을

근대문화1번지에서 만나는  
근현대의 절묘한 콜라보레이션



편집부

양림동은 혼돈과 열성의 100년 전 상황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100년 전 시간이 골목골목에 새겨져 있어, 근대의 혼란스런 태동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이 마을엔 혼돈의 땅에 깃들었던 선교사들의 흔적과 배움으로 세상을 극복하고자 했던 청년들이 열성이 가득하다. 그런 몸짓들은 모두 희망을 잉태한 것들이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은 사직산과 양림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양림 楊林'은 비드나무 숲으로 덮여 있는 마을이란 의미다. '양촌 楊村'과 '유림 柳林'을 합쳐 마을 이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이 마을로 들어와 교회당을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열었기에 '광주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림동에 근대건축물이 유난히 많은 것은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목포를 거쳐 광주에 성착할 때, 이곳 양림동에 자리 잡고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교활동 흔적은 오원기념각을 중심으로 양림동 구석구석에 남아있다. 이곳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호남신학대 뒷산에 있다. 순교자 850명을 기리는 기념공원 또한 이곳에 있다. 한국 기독교 문화의 보고가 이곳인 이유다.

광주의 예루살렘, 근대문화 1번지 양림동 여행의 시작점은 양림동 커뮤니티센터다. 바로 옆에 '펭귄 마을 입구'라는 간판을 펭귄이 들고 있다.

화재로 집 한 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난 후 그 곳은 쓰레기들이 쌓이는 폐가로 방치되었다. 그 때에 마을 촌장님이 나서서 그곳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깨끗해졌고 그 집터는 어느새 텃밭이 되었다. 크지 않은 작은 텃밭이다. 이 텃밭을 가꾼 이들은 대부분 관절염을 앓고 사는 고령의 노인들이었다. 그들이 일하는 모습이 펭귄이 아침아침 걸어가는 듯 하다 하여 펭귄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다. 골목길로 접어들면 좁은 골목의 벽마다 삶의 흔적이 그림으로, 벽화로, 시로 장식되어 있다.





# 광주의 예루살렘

골목마다 예술이 깃든  
문화예술의 성지가 되다



양림교회 쪽으로 방향을 돌려 근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양림동 시간여행의 주된 축은 건축기행이다. 하나하나의 건축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광주라는 도시가 지나온 시대를 고스란히 복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0년이 넘는 양림교회와 여성교육을 담당한 수피아여학교, 기독교원의 진신인 제중병원, 우일선(Robert M. Willson) 선교사 사택 등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이다.

고아원 사역에 앞장섰던 우일선 선교사의 사택은 잿빛 벽돌과 오래된 수목의 조화가 아름답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 사망한 오웬 목사의 기념공간인 오웬각과 커티스 메모리얼홀, 윈스브로우홀도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따뜻한 주택가 골목길이 있어 양림동은 걸어서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좁은 골목 사이의 살림집들은 낡았지만 남루하지 않다. 신시가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편안함이 있다. 사이사이 들어선 카페에서는 커피향이 풍겨온다.

시인 김현승, 음악가 성윤성, 소설가 황석영 등 예술가들의 흔적들이 남은 이곳은 젊은 화가와 작가들의 창작공간이기도 하다. 예술 작업 공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한희원 갤러리, 515갤러리, 다형다방, 모단걸테이블, 호랑가시미술관, 양림미술관, 카페 파우제, 동개비 등 문화카페와 창작공간이 동지를 들었다.

양림동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양림주민창작소, 마을기업, 특히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열리는 골목비엔날레도 볼 만하다.

인문학, 음악, 독서, 미술, 공예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회와 축제 등 행사가 끊임없이 열려 발길을 찾는 사람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이맘 때는 크리스마스 축제로 거리 가득한 조명과 트리, 소품들이 낭만을 자아낸다. 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며 카페와 음식점, 바 등 추위를 피할 곳도 많아 연말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다. 🍷





# 송정 떡갈비

착한 며느리가 만들어낸 효도음식

편집부

그 거리는 유혹의 거리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달달하고 구수한 갈비 냄새가 진동을 한다. 자그마치 200미터에 달하는 골목길 양쪽에 떡갈비 전문점이 들어서 있다.

어느 집이나 기본 메뉴는 비슷하다. 뜨끈한 갈비탕 국물은 큰 그릇에 무료로 제공된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잘 다져서 갖은 양념을 한 다음 빈대떡처럼 빚어 떡갈비를 구워낸다. 이 갈비는 싱싱한 야채를 곁들여 씹을 한다. 흰 쌀밥에 떡갈비 한 조각을 얹어 씹을 씨먹고 갈비탕 국물을 들이키면 천하 별미가 따로 없다.

달달한 송정떡갈비는 한국사람 입맛은 물론 외국인들도 '엄

지척'을 하는 보편적인 맛을 지녔다. 스테이크 맛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양념맛이 훨씬 섬세하고, 스텍처럼 제공되는 갈비탕 맛도 깊기 때문이다.

지마다 송정떡갈비 원조집이라고 원조 경쟁을 하는 이 거리의 진짜 원조는 따로 있다. 원래 떡갈비는 궁중 음식에서 유래가 됐다 한다. 점잖으신 임금님 체면에 고깃점을 뜯으려고 소 갈비대를 썰 수 없으니 미리 살점을 발라서 다진 뒤 갖은 양념을 해서 다시 뼈에 붙여서 구워냈다는 것이다. 이 전통을 따르는 곳이 담양식 떡갈비다.

# 광주의 5미昧

맛의 세계를 맛으로만 평정하다



## 격식을 갖추기보단 맛에 치중

그런데 송정리 떡갈비는 굳이 뼈에 다시 다진 고기를 붙이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고기도 소고기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뼈는 뼈대로 고아서 탕으로 즐기고 고기는 고기대로 다져서 구워먹는다.

바로 1950년대 송정리 5일장 주변에서 탄생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당시 천정어머니와 함께 송정시장 주변에서 밥집을 하던 고故 최처자 할머니가 송정리 떡갈비의 창시자로 불린다.

최처자 할머니가 송정시장에서 떡갈비 메뉴를 만들어 낸 데에는 효심이 있었다. 송정역이 1913년에 생기면서 송정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주변에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어서 고기재료를 구하기도 쉬웠다. 최 할머니는 시댁 어른들에게 시장 인근

에서 사온 고기를 구워드렸지만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먹지 못했다. 생각 끝에 고기를 다진 뒤 양념을 해서 얇고 넓게 구워서 드렸다. 다져서 구워낸 고기를 맛본 집안 어른들은 매우 만족해했다. 최 할머니는 집안 어른에게 극찬을 받은 이 음식을 식당 메뉴로 내놓았다.

갓은 양념을 해서 구워 낸 떡갈비 덕분에 최 할머니네 음식점에는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다.

## 송정떡갈비만의 별미, 돼지뼈국물

최 할머니네 식당은 9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고, 그 사이에 할머니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주변에 떡갈비식당을 하나 둘 차리기 시작했다. 떡갈비 골목이 형성된 것이다.

처음에는 주로 소고기 떡갈비를 팔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돼지고기를 섞기 시작했다. 쌈채소 외에도 묵은 김치나 초절임 부를 곁들이기도 하고, 건강을 챙기는 손님들을 위한 오리떡갈비 메뉴도 개발이 됐다.

특히 떡갈비와 함께 나오는 음식 중 사랑을 받는 것은 돼지뼈 갈비탕이다. 갈비가 나오기 전 손님상에 나오는 이 돼지뼈 국물은 속풀이로 그만이라 전남 술을 마신 주당들이 특히 좋아한다.

광주의 5미昧로 송정리 떡갈비, 한정식, 오리탕, 보리밥, 김치를 꼽는다. 정통음식 떡갈비가 한정식과 나란히 광주를 대표하는 별미 반열에 오른 것이다. 맛의 세계는 오로지 맛으로만 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

# 공동체로 태어난

## 호남 2세

박현수  
씨아이임팩트 대표

어느 날, 자주 찾던 가게의 사장님이 우리 가게의 광고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다. 덕분에 몇 년간 목포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에서 와서 금방 떠날 줄 알았는데 목포 여자랑 힘겨고 생하며 애도 낳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냐"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사장님이 나를 목포 사람으로 받아 들여 준 것이 놀랍기도 고맙기도 했다.

목포는 항구다. 항구는 떠나는 이도 다시 돌아오는 이도 많은 곳이다. 나는 호남이 고향인 아버지 밑에서 '서울촌놈'으로 자란 '호남 2세'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목포라는 도시에서 자리잡고 살았다. 목포라는 도시로 오게 된 계기는 별로 거창하지 않다. 청년들이 지방에 와서 쓴 성공신화는 별세계 이야기였다. 우연히 배서령, 파도서럼 떠밀려 도착한 종착지가 목포라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사했다. 몇 년 전부터 목포는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였으며, 타지 사람들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했다. 먹고 사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꼭 '서울촌놈'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두 해는 목포에서 거래처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온라인을 통해 광고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려 애썼다. 돌아보니 목포보다 서울에서 영락이 더 많이 왔다. 목포에서는 타지에서 온 청년이 친절하게 찾아오니 사짜같다는 소리도 종종 들었다. 영락없는 서울스타일이었다. 그 와중에 할 일은 다 했던 것이 목포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후에는 내 생각도 접근법도 많이 바뀌었다. 더 마음을 열고 다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내 가족의 뿌리이자 공동체인 목포와 호남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호남에서 산다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와 태도 등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식에게도 자부심으로 물려주고 싶었다.

내 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 딱 강인해 보이고 무뎠하셨지만, 고향인 호남에서 상경한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과는 정말 가깝게 지내셨다. 그게 삶의 어려움이 뭉친 것인지는 모르고 그때는 그것이 단순히 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때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목포에 와서 살면서 점차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호남의 어느 곳을 다녀봐도 비슷했다. 호남에서 만난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끈끈한 성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호남의 문화와 의미를 점차 알게 되었다.

최근 한 선배께서 내게 “너도 호남의 자식이구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 내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서울에서 자랄 때는 호남이라는 뿌리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호남의 아들이자 아파라는 정체성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책임감이 더 커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어쩌면 목포라는 도시에 살게 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모른다. 내 뿌리가 이곳에 닿아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은 아닐까.

현재의 나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인 광고보다는 메시지나 가치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한다. 호남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늘 고민한다. 이 콘텐츠가 우리의 성서와 가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길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단순히 광고나 카피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이 최선의 답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호남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각을 나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는다. 호남은 나 혼자만의 뿌리가 아니다. 호남은 많은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이다. 나는 이 공동체의 성서를 콘텐츠에 담아내고 알리며, 이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호남의 미래 세대는 과거의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호남의 가치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물려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다. 내 자식이 호남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호남에서 만난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끈끈한 성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임영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인턴

# 신호는 짧고

# 길은 짧고 멀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의 저하다. 이로 인해 위험을 인지하거나 대처하는 속도가 느려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6.6%로, 60%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이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2022년 기준).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서울시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은 보행 속도 1m/s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산출된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를 배려해 보행 속도를 최대 0.7m/s로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도 보행 신호 시간을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도 지난 7월부터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으로, 신호등 기둥에 부착된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너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 시간을 최대 5초 연장한다. 더불어 진광판을 통한 보행자 안내와 위험 경고 방송도 제공한다.





횡단 신호가 짧다는 단순한 사실은  
고령자에게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

고령자의 보행 문제는 정책적,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로도 조명된다. 노년의 두 여성이 주인공인 미국 드라마 <그레이스 앤 프랭키>에는 '횡단보도'를 소재로 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드넓은 왕복 6차선 도로. 그 너머에 대개 무한리필 뷔페가 새로 열렸지만, 신호등의 파란 불은 짧고, 길은 멀며, 무릎과 허리는 시큰하다. 이에 주인공들은 시청에 횡단 신호가 너무 짧다고 항의한다. 시청에서는 실제 횡단 시간을 측정해 파란불 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주인공은 휠체어와 지방이름 동원한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속도로 도로를 건너 신호 시간을 늘리는 데 성공한다.

이 에피소드는 픽션이지만, 실제로 고령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횡단 신호가 짧다는 단순한 사실이, 고령자에게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책은  
궁극적으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접근이 모두 중요하다. 단순히 횡단 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시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 대책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러한 개선책은 궁극적으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정책을 설계할 때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확산시켜,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 희망을 보다

김옥열 사진작가

사람이든 미물이든 산다는 건  
희망을 보고 나아가는 것 아닐까.  
벽이라도 뚫을 기세로,  
빛이 있고 길이 있으면 앞으로 가야하는 일은  
곧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리라.

지다가 봉창두드린다고,  
아닌 밤중에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사태를 당하면서  
우린 확인한다.

그래도 중심있는 국민이 있기에.  
마치 희망을 잃지않는 저 나팔꽃처럼 우린 간다. 🌻







# 법 잘 알려주는 재단 오빠

김민표 변호사

## 상속과 유언 II

지난 시간에는 사망한 자연인이 유언하는 5가지 방법과 철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진행위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①항). 이서럽 유언자가 임의로 철회하는 것 외에도 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109조).

만약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헤친 때에는 그 파헤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이 됩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어서 그 재산을 받을 자가 상속을 거절하려면 유언이 철회되지 않고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 후 즉 유언자가 사망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한성상속, 상속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효력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것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민법 제47조 ②항),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50조), 인지

(민법 제859조 ②항),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민법 제931조 ①항),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금지(민법 제



1012조), 유증(민법 제1074조 등), 유인에 의한 유인집행자의 지성 또는 위탁(민법 제1093조)을 정하고 있고, 신탁법에서는 유인에 의한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을 정하고 있어서 유인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 외에도 여러 사항에 대해서 유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인의 형식과 유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유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유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제1003조에서 대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상속순위에 대해서 유인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인을 통해서 상속순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현재 우리 민법 체계에서는 유인을 통해서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속인으로 지성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이 아닌 유증으로 유인상에 기재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거나 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해야 하고 직접적으로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법정 사항에 대하여 작성된 유인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유인에서 표시되는 유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인을 집행하게 됩니다. 유인을 집행하는 자를 유인집행자라고 하는데 유인집행자에는 지성유인집행자, 법정유인집행자, 선임유인집행자가 있습니다.

지성유인집행자는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인자가 유인으로 유인을 집행할 사람으로 지성한 자를 뜻합니다. 유인자가 별도로 유인집행자를 지성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이 유인집행자가 됩니다. 유인집행자는 여러 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모두 유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거나 사망하는 등의 여러 사유로 유인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인집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선임된 유인집행자를 선임유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유인을 집행하는 것인데 유인자가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그 보수를 정할 수 있고, 상속재산 중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인집행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나 제한능력을 받은 자는 유인집행자가 될 수 없는데 일단 지성 또는 선임된 유인집행자는 가성법원의 허가 없이는 유인집행자에서 사퇴할 수 없고 유인에 따른 집행이 모두 이루어지거나 집행자에게 결격사유 등이 있는 때에 그 업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 회원 맛남의 날

지난 6월 29일 오후 6시 30분, 회원 맛남의 날이 오형근 후원회장 음악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은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박신영 부이사장이 준비한 20여 가지 음식으로 풍성한 맛남의 시간을 가졌다.



### 제13기 역사문화시민대학

제13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개강 및 첫번째 강좌가 지난 9월6일(금)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광주 읍성을 '읍세권 클라쓰' 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우리 지역 선조들의 삶의 숨결과 발자취 의병의 장소였던 광주읍성이 지닌 민족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5차 임원회의 및

6.17

#### 20주년 준비위 재정위원회 개최

이날 안건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후원이사회의 상정 안건과 창립20주년 기념행사 후원 마련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임시이사회 개최

6.29

이사회는 이사장 권위와 후원의 범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소집되었다. 이사장 권위에 따라 이사장 임기 동안 오형근 후원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기로 하였으며 연말 2차 정기이사회 개최 시기에 신임 이사장을 선출키로 하였다.



### 6차 임원회의 개최

7.8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된 임시이사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 건과 재단 국책사업의 결과물인 홈페이지 관리 운영 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7차 임원회의 개최

8.19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사무처 운영 건, 호남사학회 사무실 이전 건,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 운용 건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쌀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우리 재단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9.6(수) '쌀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와 쌀 재고 과잉문제, 이로 인한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에게 쌀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 재단과 농협중앙회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쌀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열다섯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책끼라웃'

열다섯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이 11월 23일(토)과 11월 30일(토)에 열렸다.

시민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지역문화교류마당은 이견상 문화해설사와 함께 11월 23에는 사천의 선진리성과 조명군총,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창렬사와 축석루 등을 탐방하였고 11월 30일(토)에는 광주의 회경루에서 출발하여 고창읍성, 삼례 책마을, 동학농민운동 삼례봉기 역사광장, 장수역사전시관과 논개사당 등을 탐방하였다.

이번 열다섯번째 역사문화시민대학은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사라졌던 광주읍성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음성 투어 프로그램으로 재단이 발간한 『광주읍성 이야기』 단행본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제로 지난 10월 강좌를 열게 되었으며 책과 강의로만 접했던 사라진 광주읍성의 모습을 실존하는 음성을 통해 그려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9.23

#### 3차 후원이사회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재정과 회원 조직 활성화 방안, 하반기 회원 만남의 날에 대해 논의하였다.



9.27

#### 3차 운영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운영, 호남기독교문화유산 홈페이지, 부운영위원장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10.28

#### 5차 창립 20주년 준비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TF구성, 재단 20주년 특별 후원사업, 20주년기념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11.4

#### 1차 20주년 기금 TF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재정을 위해 TF팀원들의 역할 분배와 모금기간을 결정했다.





**백수인 고문(조선대 명예교수)**  
세 번째 시집 '겨울 언덕의 백양나무 숲' 발간. 교회에 다다른 시인의 삶과 내적 고백, 유년시절 고향 풍경 고운 언어로 표현\_출처:전남매일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식구들을



**노경수 이사장 취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제 7대 이사장에 노경수 광주대 교수를 선출했다.



**황재익 후원이사(오스메딕 대표)**  
영남대, 오스메딕에 의료 특히 기술 이전. '기술료 1억+12년간 제품매출액 1~5%' 받기로. 의료기기 임상 조기 완료 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_출처:경북일보



**이기훈 이사**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센터장)  
2024년 시민사회 네트워크 축제는 '어서와! 공익활동, 반가워! 시민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_출처:광주일보



**김경한 운영위원(이야기브릿지 대표)**  
부산보건대, '지속가능한 공유·협업 포럼' 개최.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3인이 들려주는 국가와 지역의 혁신 인재로 성장하는 길'로 특강\_출처:이뉴스투데이



**정성구 운영위원(도시문화집단CS 대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문화권' 방향"을 주제로 2030 포럼과 함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_출처:노컷뉴스

# 응원원 문화원 다



**안평환 회원(광주시 시의원)**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 회장\_출처:뉴스워커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식구들의 성취를



**노성태 이사(남도역사연구원장)**  
국가지정유산 추진을 위한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문화유산적 가치 발굴을 위한 심포지엄 주제 발표\_출처:동아일보



**김광욱 기획위원**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  
1인당 연간 독서관수 감소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독서 활동의 패턴이 변했다는 신호. 이에 대응하는 도서관 및 독서 정책이 필요\_출처:전남매일



**천득염 회원(전남대 명예교수)**  
광주불교연합회, 11월 8일 광주시청서 학술대회 개최. ‘빛고을 관동회’ 사업 일환...전통 문화 계승·발전 노력 출처:법보신문



**한희원 회원(미디어아트 작가)**  
한희원 작가 특별전으로 2022년 여름 ‘지역작가전시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했던 ‘조지아의 푸른 바람과 눈물겹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초대전이다\_출처:스카이데일리



**이용섭 회원(전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상임고문으로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위촉\_출처:퍼블릭뉴스

# 희

# 망

# 니

# 다

# 알세프

TALK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20주년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지금껏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을 바탕으로  
시민 문화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담론을 통한 문화민주주의 실현,  
광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재단은 짙어져 가는 갈등의 시대에 문화의 힘으로 만드는  
대동 세상을 꿈꾸며 향후 2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동체 구축과  
인류사회가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문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 보태주시길 정중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오명근



20주년준비위원장 노경수



운영위원장 김양구



컨텐츠연구소장 노성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계좌안내

광주은행 [예금주: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019-107-320656



박신영

광주은행 019-107-320656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마음을 보태주시시오



김혜선

함께합니다 지역문화교류재단  
감사합니다



정성구

저도 보태겠습니다

사무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허우허우  
보내겠습니다



주홍

작은 마음 보냅니다



이기훈

부이사장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써  
작은 씨앗을 뿌린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후원계좌 광주은행 019-107-318262

◆예금주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의 062-234-2727

회원가입 바로가기>>



## 후원회원 혜택

### 세제혜택



후원금, 기부금  
(개인30%, 법인10%)

### on/off 정기간행물 발송



뉴스레터 및 문화계간지,  
한정판 역사문화자원 발간 서적 등 발송

### 무료 or 할인 입장



강좌, 포럼, 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 무료 참여 및 할인

### 웰컴키트 제공

Welcome!



신규회원 한정

# 지금 **지콘**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Q 애니메이션·캐릭터 제작

Q 웹툰·웹소설 창작

Q 청년 창업 멘토링

Q 지역 뮤지션 양성

Q 영화·드라마 제작

Q 기업 투자 유치

Q OTT 콘텐츠 제작

Q 모바일·VR게임 제작

Q 글로벌 진출

Q 모바일 앱 개발

Q 인공지능 콘텐츠 융합 창작

Q 저작권 교육



Merry christmas!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



2024년 양림 &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선교문화의 중심지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펼쳐지는  
광주 대표 겨울축제!

행사일시

2024. 12. 2.(월) ~ 12. 31.(화)

행사장소

(무대) 양림오거리, (경관조명) 양림오거리~선교묘역

행사내용

행사일자	행사시간	프로그램 내용
12. 2.(월)	17:00~18:30	성탄트리 경화식, 순례길 행진
12. 21.(토)	13:00~17:00	공예거리 산타페스타
12. 22.(일)	14:00~16:00	산타의 특별한 선물 양림콘서트
12. 24.(화)	16:00~20:00	크리스마스 이브닝 행사, 거리 퍼레이드
12. 25.(수)	10:00~20:00	버스킹 공연, 청소년 희망나눔 행사, 먹거리 강터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16)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남구 / 양림&크리스마스문화축제추진위원회